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새로운 계절 다시 세우는 신앙 결심
- ◎ **사순절 4:** 사순절 네번째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던 주님처럼,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 ◎ **월샷 기도회:** 4월 1일(화)은 월샷 기도회 날입니다. 새 달을 기도로,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 **한주간 새벽기도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월)-4월 18일(금)까지 있습니다.
- ◎ **교육:** 세례자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 신청바랍니다.
- ◎ **비전트립:** 자녀들의 방학을 이용해 가족, 선교, 공동체 별로 봉사과 전도를 위한 선교지 탐방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모임:** 다음 주는 월례회 주일입니다. 모이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 **기도회:** 향촌 직분자 기도회가 오후 3시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 **찬양대:** 오늘은 바누아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연습하는 주일입니다.
- ◎ **감사:** 청년부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신 성도,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신 바누아투 공동체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 ◎ **알림:** Day light Saving이 오는 주일(4월 6일)로 끝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예: 11시를 10시로).
- ◎ **알림:** Tax credit claim을 위한 현금영수증(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을 다음 주에 발행해 드립니다. 올해에 처음 받으시는 분은 영어이름을 재정부(박덕철장로, 경덕현집사, 김철재집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부임:** 이성철 목사(박영선사모, 하나, 세영, 동진)께서 오늘부터 중고등부를 맡아 갈보리 교회를 섬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우소식

- ◎ **수술:** 정덕수 장로 - 4월 1일(화) 눈 수술을 합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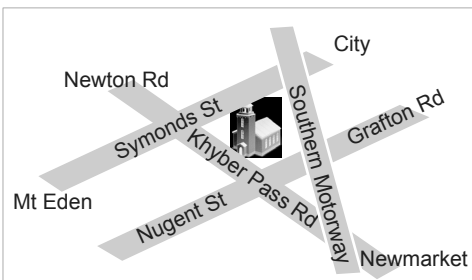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3월 30일 16권 13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당신의 뒷모습은 안녕하십니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 보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솔직히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버랩되는 장면들... 짧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의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각인되는 건 왜일까를 묻게 됩니다.

특히나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지나 온 날들 간직해두었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떠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처음 뒷모습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작고 하신지 꽤 오래되었지만 그 때 할아버지는 꽤 정정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그마한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이자 퇴근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회사 분들의 인사를 받으며 홀로 회사를 나오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뭔가 모를 아쉬움과 적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버지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던 그 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에게는 꽤 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쉼 없이 달려오셨던 아버지, 서울에서 신대원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까이서 찾아 뵙지도 못했는데 그 때에는 왠지 꼭 가보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회사 생활을 그만두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무척이나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때 아버지의 뒷모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또 새로운 길을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이었겠지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내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묵직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또 한 편의 영화 같은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입시 준비하는 오빠 뒷바라지에 많은 힘을 보태었던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신랑과 함께 먼 길을 떠났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당시 인천공항이 띄어나 생소하게 다가올 때였는데 인천 국제 공항을 떠나가는 동생의 뒷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참 애절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던지라 아버지, 어머니는 떠나 보내는 아픔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었지요. 그 때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가는 동생의 뒷모습이 저에게도 떠남의 시간을 허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 맛보았던 뒷모습을 이야기하며 마칠까 합니다. 첫째 아들 녀석이 나이가 차서 학교를 가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홀로 길을 걸어 학교를 가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경험하셨겠지만 그 때 혼자 학교 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꽤 오래도록 지켜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감정이 오래 동안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뒷모습이 그리워질 때면 저의 뒷모습은 어떤까를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의 뒷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이 행동하는 계절이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때이지요.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 걸어가신 뒷모습을 묵상하면서 더불어 내 인생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여유 어떻습니까? - 심창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성 찬 식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미가 6:6-8
찬양대
다함께
10장. 전능왕 오셔서
127. 사순절 4
사도신경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박병민 장로
누가복음 22:14-20
나무십자가 찬양대, 터키공동체
나를 기념하라/이태한목사
집례자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박제용 장로
요나 1:14-17
바다에 던지매/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Seira 자매

◎ 4월 교회일기

사순절 다섯째주일: 4월 6일(주일)
종려주일: 4월 13일(주일)
한주간 기도회: 4월 14일(월)-18일(금)
부활주일: 4월 20일(주일)
선교학교(제 3회): 개강 4월 25일(금)
새가족 환영회: 4월 26일(토)

◎ 4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문일숙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이기중 권사
다음 주일: 최광암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4월 9일 수요: 김승훈 집사
4월 9일 애찬: 임병숙 권사
4월 13일 주일: 현석호 장로
4월 13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은혜로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 2.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삶의 환난과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 3.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4월 새벽기도회 본문

- 1일: 삼상 26:1~12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 4일: 삼상 28:1~14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11일: 갈 1:11~24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십시오
- 18일: 마 27:35~50 버림받을 나 대신 버림받은 예수님
- 25일: 갈 4:12~20 사랑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심재우 선교사의 소식을 두번에 걸쳐 게재합니다.

목사님 평안하신지요?

저희 가정은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위는 얼마 전에 많이 잠잠해져서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곳에 평화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은 3~5월이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제가 기도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메일을 주셔서 완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달에 한번, 늦어도 두 달에는 한번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광희 장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제목은 매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헌금을 교회 지봉공사 헌금으로 내었습니다.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갈보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1. 매일 목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저희 가정 안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살롬의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온 Rachel, Morgan 자매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영어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3. 반정부 시위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번 시위를 통해 태국교회가 정부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4. 영광교회의 지봉공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에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길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방콕에서 심재우 올림
(다음 주에 이어서 게재합니다).